

국가 이미지와 통일·대북정책 태도 간 관련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구본상 ■ 충북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과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 간 연계를 국제관계에서 활용되어 온 국가 이미지(national images) 이론의 틀을 적용해 탐색한다. 우선 한국인이 주변국에 대해 가진 국가 이미지를 유형화한 후 이미지 유형별로 통일인식 및 대북정책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은 통일에 관한 한 가장 소극적이며, 현상유지적 대북정책을 지향하는 특성을 보인다. 미국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은 통일을 위해 개인적 희생도 불사하며, 필요에 따라선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통일지향 계층으로 파악된다. 중국 이미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야만국 이미지 유형은 일본에 대한 제국 이미지 유형처럼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통일 소극 계층이자 현상유지적 대북정책을 지향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단절이 더 이익일 수 있다는 의견에는 부정적이라는 점에서는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문화 수준의 향상이 주변국(특히 중국)을 야만국으로 인식하는 유형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오히려 통일 및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태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국가 이미지, 통일·대북정책 태도, 야만국 이미지, 제국 이미지

I. 서 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분단의 역사를 되돌아켜보면, 남북관계는 경

* 이 논문은 통일연구원의 2022년도 연구과제인 KINU 연구총서 22-20 <KINU 통일의식 조사 2022>를 바탕으로 재작성하였음.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E-mail: bsk245@gmail.com)

색과 완화 국면의 연속이었다. 지정학적으로는 한반도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지위에 있는 국가에 둘러싸여 있고, 이들은 남북한 분단에 나름의 이해(利害)가 있으며, 그에 따라 남북한 통일을 바라본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 중인 현실은 남북한 통일 문제를 두 당사국만의 문제로 환원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관한 대중의 인식은 남북한 통일정책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복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 노력과 실패의 경험은 양국 지도자의 전격적인 만남, 남북한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통일 달성이 가능하리라 보지 않는다. 예컨대, 지난 2019년 하노이에서 있었던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의 실패 이후 남북관계는 급랭하였고,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재개 등으로 빠르게 이어졌다. 미국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무기력함을 노출했다. 이처럼 아무리 남북한 관계가 해빙기에 도래했어도 미국이 북한과 대립하게 되면, 남북한 간 통일은 차치하고 협력 논의조차 진전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다수는 통일 실현에 비관적인 태도로 빠르게 돌아섰다(이상신·민태은 외 2019). 통일 실현에 비관적일수록 적극적인 남북교류 협력이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고,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북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반대로 특정 주변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국가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미국을 남북한 통일에 적어도 걸림돌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큰 사람은 일본이 남북한 통일을 바라지 않으리라 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수출입규제와 이에 대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정점이었을 때 확인되었다(이상신·윤광일 외 2019). 이렇게 볼 때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간 관계는 서로 연계되었을 수 있고, 이는 통일 및 대북정책의 실행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과 통일에 대한 태도 간 관계에 주목한 연구도 있었으나 그 결과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에 기반을 둔 것에 기인한다.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는 그 자체로 변동성이 워낙 클 뿐만 아니라 국가에 따라 그 변동 폭도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경우 단기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비호감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 이는 일제 강점기 경험에서 비롯한 부정적 정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반면, 중국에 대한 인식은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이나 특정 사건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

은 기본적으로 적국으로 인식되었다. 1992년 중국 국교 수교 후 민간 차원 교류가 확대되면서 중국에 대한 호감은 상승했으나,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한국 내 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한류 콘텐츠를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을 시행하자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커졌다. 최근 조사에선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Lee et al. 2023, 86). 이처럼 호감에 기반을 두고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을 이해하려 하면, 조사 시점과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호감도의 변동 폭에 매몰될 수 있다. 따라서 호감도보다 변동성이 적고 체계적인 주변국 인식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국제관계에서의 이미지 이론(international image theory, IIT)의 틀을 적용해 한국인이 주변국에 대해 가진 국가 이미지를 유형화한다. 단순한 호감도보다 안정적인 개념으로서 국가 이미지에 주목하여 한국인이 주변국에 대해 가진 이미지에 따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탓에 이론 수립 후 검증이라는 연역적 접근 대신 탐색 결과로부터 이론화에 도달하는 귀납적 접근을 택한다. 비록 탐색적 연구라는 한계는 있으나, 국가 이미지별로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 간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금껏 ‘친중 대 친미(혹은 친일)’라는 단순한 구도로 통일과 반통일적 태도로 양분해 설명해 온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접근을 지양해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다음 장은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그리고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국제관계 분야에서 활용되어 온 이미지 이론의 틀을 제시한다. 4장은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 관한 변수 및 측정값을 제공하고, 엄밀한 검증을 위해 한국인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명된 다양한 설명변수도 함께 고려한다. 여기에는 정치변수 및 성격특성도 포함한다. 5장에서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선 경험적 결과를 요약한 후 이것이 가지는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II. 주변국 인식과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국제관계적 중요성에 따라 주로 미국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떨어진 적은 있었으나 점차 회복되었고, 2010년대 이후 대미 호감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 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미국의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에 대한 인식은 분석 시점에 따라 뚜렷하게 다르게 그려진다.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이후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커졌고,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홍콩 민주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과 이를 반대하는 한국인들의 대자보를 중국인 유학생이 파손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뚜렷하게 악화되었다(이상신 외 2021). 최근 조사에선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Lee et al. 2023). 이상신·장희경(2011)의 연구처럼 친미(親美)적 태도가 반드시 반중(反中)적 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중 갈등의 심화와 국내정치적 극화는 한국인의 미·중 양국 인식에서의 차이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미·대중 인식은 연령대외도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부상을 성장기에 본 청년세대는 소위 86세대와 비교해 중국에 대해 크게 낮은 호감을 보였다(송생·이재목 2019). 비록 연령-코호트-기간효과 분석(age-cohort-period analysis)을 사용한 연구 결과는 부재하지만, 이것이 세대 차이 혹은 중국 정부의 일련의 일방적 조치에 따라 형성된 기간효과(period effect)이든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과 비교해 일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일본을 바라볼 때 경멸, 질시,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전재호 2002, 2019; Koo & Choi 2022; Shin 2019). 이처럼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묘사하듯 반일감정으로 단순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라 일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팽배했던 시기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후 지소미아)을 종료할 것인지를 두고 국내 여론이 찬반으로 갈렸다.

‘친일’ 혹은 ‘반일’이라는 담론 수준의 논의를 벗어나 한국인의 일본 인식에 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한 노력은 2000년대 중반에서야 등장했다. 지병근(2008)

은 한국인의 이념, 그리고 일본의 위협에 대한 합리적 판단 외에도 일본의 소프트파워에 관한 평가와의 연계에 주목했다. 예컨대, 일본과의 공정 무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일본에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한 설문조사(동아시아연구원 2006)에서 나타난 여러 쟁점에 대한 태도를 설명변수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다시 말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본과의 공정 무역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역인과관계(reverse causation)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인의 일본 인식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최종호 외(2014)는 일본에 대한 감정을 종속변수로 놓고, 일본의 군사 대국 시도에 대한 우려를 핵심 설명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들의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우경화 외에도 군사적 요인, 경제적 이해관계, 폐쇄적 민족 정체성 및 개인적 배경에 따라 일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달라졌다. 2010년대 후반 데이터를 활용해 대일 인식을 분석한 박인술 외(2023)는 일본의 군사적 위협인식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대시키며, 청년세대는 문화접촉이, 노년세대에서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일본 인식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일본 관련 쟁점에 대한 태도와 연계될 수 있음을 밝힌 경험적 연구도 있다. 장기영(2017)은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철거와 같은 일본 관련 쟁점에 대한 우리 국민의 태도가 북한의 안보위협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태도와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 인식 간 관련성에 주목한 후속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변국 인식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에 관한 명확한 이론이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단순한 민족주의나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정서를 넘어 주변국 인식은 다양한 변수와 연결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되었다. 특히, 주변국 인식은 세대(박인술 외 2023), 스스로에 대한 인식(혹은 정체성), 정당일체감 및 이념을 포함한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대상 국가가 가진 군사력에 대한 인식(최종호 외 2014), 소프트파워 인식(지병근 2008), 성격특성(Koo & Choi 2022) 등과 연계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변국 인식과 통일·대북정책 태도 간 연계에 관한 이론이나 체계적 분석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이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와 연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남한과 북한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분단 상황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이 집결해 있는 지리적 조건 등은 통일 문제가 남북한 관계의 진전으로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님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한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일본 관련 쟁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면(장기영 2017), 역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북한 관련 쟁점에 대한 태도와 연계될 수도 있다. 이처럼 주변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한국인의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추정은 타당성을 지닌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인식은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와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 시행은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켰음은 분명하다. 설령 중국에 대한 반감이 들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 갈등에 빠지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우경화와 팽창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강대국 가운데 누가 일본의 팽창을 제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약 남북한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을 일본으로 여기는 사람이 미국은 일본의 팽창을 견제할 의도가 없다고 인식한다면, 설령 그가 미국 자체에는 상당한 호감을 느끼더라도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중국의 부상에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Koo & Choi 2022). 이처럼 비록 인과관계는 아닐지라도 주변국 인식과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가 서로 연결되었으리라는 추론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주변국의 능력을 어느 수준까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을까? <표 1>은 2020년과 2022년 통일연구원(KINU) 통일인식조사에 드러난 한국인의 주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능력에 대한 인식 측정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각국의 군사력, 경제력, 문화 수준 등에 관한 평가를 한국을 기준으로 한 7점 척도(4점=한국과 비슷)로 측정하였다. 경제력에 대한 평가가 실제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기준 순위와 일치했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한국인의 주변국 능력 인식, 2020년과 2022년 비교(7점 척도)

	군사력		경제력		문화 수준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미국	6.12	6.24	6.17	6.14	5.58	5.55
중국	5.43	5.52	5.31	5.20	3.72	3.43
일본	4.60	4.64	4.99	4.74	4.81	4.39
러시아	4.89	4.75	4.25	3.93	4.04	3.26

*출처: 이상신 외(2020), 박주화 외(2022).

우선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 문화 수준 모두에서 주변국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중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평가됐으나 문화 수준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즉 한국인은 중국을 군사·경제적 강대국으로 인정하지만, 중국의 문화적 매력, 즉 소프트파워는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주변 4대 강국 가운데 군사력으로는 가장 뒤처지고, 경제력도 미국과 중국에 뒤지지만, 문화 수준(2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러시아의 경우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2022년 조사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락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이후 드러난 군사적·경제적 취약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문화 수준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경험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속해 국제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II. 국제관계에서의 이미지 이론 (International Image Theory, IIT) 적용

국가 이미지는 일종의 브랜드(brand)로 기능하기에 각국은 긍정적인 자국 이미지를 형성하기를 원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 이미지는 전략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Van Ham 2001).

국가 이미지 개념을 외교정책과 여론 분석에 처음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보울딩(Boulding 1959, 120-121)에 따르면, “이미지란 행동 단위의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평가적 총체 구조, 또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한 내적 시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제관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의 하나로서 개인 수준에서 형성되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해당 국가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태도, 그 국가와 관련된 외교 행위에 관련된 신념과 지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Kelman 1965).

이러한 관점에서 외교정책 신념체계(belief system)상 위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 허위츠와 페플리(Hurwitz & Peffley 1987)는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국제공동체에 대한 핵심가치(core values)에 의해 제어되는 사고방식(postures)으로부터 개별 외교정책에 관한 선호를 형성한다고 주장하며, 대중이 외교정책에 무지하며 정책에 대한 선호가 무작위로 형성된다고 보는 일반적 인식, 소위 ‘알몬드

-리프만 합의(Almond-Lippmann Consensus)를 반박하였다. 대중이 특정 국가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외교정책 태도를 형성할 때 위계 가운데 더 근원적인 신념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특정 국가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호감처럼 즉흥적이고 변동성이 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지니리라 기대된다.

물론 개인이 가지는 국가 이미지가 고정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외교 쟁점이 발생하면, 개인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근거해 여러 정보를 인식한 후 외교정책에 대한 신념을 업데이트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특정 국가에 대해 가진 이미지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국가 이미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동맹국(ally)과 적국(enemy) 이미지이다. 냉전 기간 미국과 소련이 적국 이미지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Herrmann et al. 1990; Hurwitz & Peffley 1987; Silverstein 1989). 또한, 아랍권 내 국제관계, 또는 아랍권과 서방 간에 제기되는 쟁점에 대한 대중의 태도 분석에도 적국 이미지가 적용되었다(Szalay & Mir-Djalali 1991; White 1991).

이후 허만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학자들은 국제관계에서 국가 이미지에 관한 더 정교한 이론을 구축했다(Herrmann et al. 1997). 이들은 두 국가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한 이해는 타국에 대한 이미지와 행태적 경향성을 결정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Bilali 2010). 또한, 타국에 대한 이미지는 자국에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태도는 유지하고, 타국에 대한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적용되기도 했다(Castano et al. 2016; Herrmann et al. 1997).

그러나 적국과 동맹국 이미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알렉산더 외(Alexander et al. 2005)는 더 다양한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세 가지 기준(목표양립성, 국력, 문화적 수준)을 가지고 국가 이미지를 유형화하였다. 첫째, 목표 양립성(goal compatibility)은 양국의 궁극적 목표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느냐 여부이다. 두 국가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때 양국은 목표 비양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국력(특히, 군사력)에 대한 상대적 평가이다. 상대국과 비교해 자국의 국력이 열등한가, 대등한가, 아니면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느냐이다. 셋째, 문화적 수준에 대한 상대적 평가이다. 상대국과 비교해 자국의 문화적 수준이 뒤쳐졌는가, 대등한가, 아니면 앞서 있다고 평가하는가이다. <표 2>는 목표양립성과 상대적 능력(문화적 지위, 국력)에 따른 타국 이미지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¹⁾

1) 본 연구는 상기한 이미지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유형을 중립 이미지(neutral image)

〈표 2〉 목표양립성과 상대적 능력에 따른 타국 이미지

타국과의 관계 유형	타국 이미지	기대 행동
목표양립적 동등한 문화적 지위 대등한 능력	동맹국(Ally)	협력(cooperation)
목표 비양립적 동등한 문화적 지위 대등한 능력	적국(Enemy)	공격(attack), 봉쇄(containment)
목표 비양립적 낮은 문화적 지위 열등한 능력	종속국(Dependent)	착취(exploitation)
목표 비양립적 낮은 문화적 지위 우월한 능력	야만국(Barbarian)	자기절제(self-insulation), 회피(avoidance), 방어적 보호(defensive protection)
목표 비양립적 높은 문화적 지위 우월한 능력	제국(Imperialist)	저항(resistance), 반란(rebellion)

*출처: Alexander et al. (2005, 30).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이미지인 적국(enemy) 이미지는 상대국에 대해 강한 경쟁 또는 목표 비양립성(goal incompatibility), 대등한 능력(comparable power), 대등한 문화적 지위(comparable cultural status)를 가졌을 때 형성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상대국에 대해 위협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공격을 통해 위협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게 한다. 상대국이 적대적이며 음모를 계획할 수 있으므로 신뢰하지도 못한다. 일단 상대국에 적국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공격(attack)이나 봉쇄(containment)에 대한 도덕적 제약을 약화해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Alexander et al. 2005, 29).

동맹국(ally) 이미지는 힘과 문화적 지위 평가에서는 적국 이미지와 같으나 두 국가의 궁극적 목표는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만 다르다. 즉 상호 공

로 설정하였는데, 한 심사자는 다양한 세부 유형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응답자 다수를 중립 이미지로 설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조합 가능한 모든 이미지 유형을 회귀분석에 고려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주변국에 대한 별다른 이미지를 가지지 않거나 다소 모순적인 이미지를 가진 응답자가 다수이며,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응답자가 뚜렷하고 일관성 있는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를 지닐 가능성은 적다는 점에서 그러한 분류가 오히려 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통의 목표와 이익을 가졌고, 힘과 문화적 지위는 대등하다고 인식할 때 동맹국 이미지를 형성한다. 동맹국 이미지는 협력(cooperate)하려는 경향과 연계될 수 있다.

종속국(dependent) 이미지는 상대국을 힘과 문화면에서 열등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증진할 기회를 준다고 인식할 때 형성된다.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의존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착취(exploit)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여겨진다.

야만국(barbarian) 이미지는 상대국이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힘은 자국보다 강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열등하다고 인식할 때 형성된다. 문화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상대국의 행동에 대한 불안과 예측 불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절제(self-insulation), 회피(avoidance), 혹은 방어적 보호(defensive protection)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최선의 전략으로 여길 수 있다(Alexander et al. 2005, 30).

그러나 이를 국제관계 이론 가운데 구성주의(constructivism)와 연계하면, 다른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별 국가는 문화적으로 열등한 세력에 저항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자국의 정체성 형성에 투영할 수 있다. 예컨대 명·청 교체 시기 조선이 청나라에 가졌던 인식이 이후 조선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당시 인조가 이끌었던 조선은 오랑캐로 인식하고 있었던 청나라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며, 남한산성에 들어가 청군의 침략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 야만국 이미지를 가진 한국인은 자기절제나 회피보다는 중국에 저항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사드 배치 논란 시 중국 외교부가 “소국(한국)이 대국(중국)에 대항해서 되겠나? 한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한겨레』 2017/01/15). 이에 적지 않은 국민이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의 현실적인 능력과는 별개로 한국 정부의 강한 대응을 요구한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제국(imperialist) 이미지는 양국의 목표가 양립하지 않고, 자국보다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위도 우위에 있다고 인식할 때 형성된다. 제국 이미지를 지닌 국가는 정교한 정책 결정 과정과 체도를 갖추었고, 복잡한 전략을 수행할 능력을 지녔으며, 자국의 자원을 착취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타국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저항(resistance)과 반란(rebellion)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제국 이미지 역시 앞선 야만국 이미지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국가에 따라 다른 대응도 가능하다. 즉 국가의 정체성 형성이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제국 이미지를 가진 국

가에 저항이나 반란보다는 자기절제나 회피 행동을 보이리라 예상할 수도 있다.

국내에도 국가 이미지 이론의 적실성을 다룬 초기 연구(남궁곤 2002)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이론적 검토에 그쳤다. 이상신·장희경(2011)은 이미지 이론에 기반을 두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분석하였으나 이미지 분류기준이 알렉산더 외(Alexander et al. 2005)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았다. 아쉽게도 체계적인 틀과 측정방식에 근거해 진행된 후속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알렉산더 외(Alexander et al. 2005)의 기준으로 이미지를 유형화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표 1>에 나타났듯이 한국인 다수는 주변국이 능력 면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열위에 있다고 인식하는 적국, 동맹국, 종속국 이미지 유형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야만국과 제국 이미지가 핵심적인 분석 대상이 된다. 최근 한국의 국력 상승과 문화적 강세에 힘입어 일본의 경우에는 능력과 문화적 수준은 대등하나 양국의 목표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적국 이미지를 가진 한국인이 많으리라 예상된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이르게 된다: 개별 국가에 가진 제국 이미지는 통일 및 대북정책에서 같은 기대 행동(또는 태도)을 유발하는가? 아니면 개별 이미지는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 다르게 연결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미국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은 중국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해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가? 이러한 질문이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은 상대국과 북한이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야만국 이미지를 가진 주변국(예: 중국)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식할 때, 그 국가에 대한 반감과 그들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전이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자연스레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고 통일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을 통계적 방식을 통해 검증해볼 것이다.

IV. 데이터와 변수

경험적 분석은 2022년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사용한다. 이 조사는 2022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시행되었고,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해 2022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로 성·연령대·지역별 인구에 비례한 할당방식으로 1,00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대면 면접으로 진행되었다.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통해 탐색적 연구를 시행하기에 다양한 종속변수를 사용한다. 종속변수의 속성에 따라 연속형 변수로 간주할 수 있을 때는 선형회귀 모형, 이항변수일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모형, 순위형 변수일 경우 순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절하게 적용한다. 본 연구가 사용하는 종속변수는 통일의 필요성, 대북 및 대외정책에 대한 태도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단순하게 통일이 필요한지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과 통일을 위해 노력이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조건이 달린 문항에 대한 답변은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인식에는 다양한 조건(예: 평화공존 vs. 통일)을 부여한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7개 문항을 활용한다.

또한,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해서 모든 대북정책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에 부정적이라도 특정 대북정책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북 및 대외정책에 대한 태도 확인을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운영 재개, 선제타격, 무력충돌 불사, 북한과의 관계 단절, 한국전쟁 시 미국 지원,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 등 8개 문항을 다룬다.

2. 설명변수

앞서 언급했듯이 회귀분석의 핵심 설명변수는 주변국 이미지이다. 우선 주변국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첫째, 목표 양립성은 “한국이 다음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1=매우 친밀한 관계, 4=중간 정도, 7=매우 적대적인 관계)로 측정한 것을 사용한다. 이때 4점(=중간 정도)을 목표양립적이라고 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이미지별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4점을 목표 양립성에 포함하면 목표양립적인 비율은 커지게 된다. 일단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 기준(1~3점 = 목표양립적, 4~7점 목표 비양립적)을 적용하였다.

둘째, 능력(군사력)은 “다음 나라들의 군사력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1=한국보다 매우 약함, 4=한국과 비슷함, 7=한국보다 매우 강함)로 측정한 후 이를 다시 3개 범주(1~3=열위, 4=대등, 5~7=우위)로 분류하였다.

셋째, 문화적 수준 역시 “다음 나라들의 문화 수준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1=한국보다 매우 후진적임, 4=한국과 비슷함, 7=한국보다 매우 선진적임) 측정된 후 이를 3개의 범주(1~3=열위, 4=대등, 5~7=우위)로 분류하여 이미지 유형 분류에 적용하였다. 추가적 이미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알렉산더와 그의 동료들이 설정한 이미지만 사용하고(Alexander et al. 2005, 29), 나머지는 편의상 “중립적 이미지(neutral image)”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이미지 가운데 실제로 응답자가 소수에 그치는 이미지는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다수(10% 이상)인 이미지를 이분화 변수로 만들어 회귀모형에 포함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제국 및 야만국 이미지를, 일본의 경우는 적국 및 제국 이미지를, 미국의 경우는 제국 이미지가 이에 해당한다.

개인 수준에서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와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 간 연계를 엄격하게 확인하려면, 적절한 미시 기반 변수(micro-foundations)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 내 집단에 대한 편견과 관련된 성격특성이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통일 및 대북 인식을 형성하는 것과 연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 내 집단 간 위계에 대한 인식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위계를 인식하는 것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집단 간 편견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인정받아온 우익권위주의 성향(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과 사회지배지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이라는 두 개의 개인 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Levin & Sidanius 1999). 두 변수 모두 보수적인 경향과 연계되기도 하나, 두 특성 간 상관성은 예상외로 낮고, 주변국을 인식할 때는 서로 다르게 작동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권위주의적 습성과만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Koo & Choi 2022).

우익권위주의 성향은 알티마이어(Altemeyer 1981; Altemeyer 1998)가 제시한 문항 가운데 5점 척도로 구성된 7개 문항(극단주의를 끝낼 강력한 지도자, 비판적인 사람들은 사회 혼란 야기, 가장 강력한 수단 사용도 정당화, 더 강력한 법질서 필요,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 말썽꾼과 문제집단 척결, 질서정연한 국민)을 사용하였다(Manganelli-Rattazzi et al. 2007). 질문에 대한 응답 평균값을 0~1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하였다. 측정값이 클수록 우익권위주의 성향이 강

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지배지향성은 사회 내에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수용하는 특성이다(Pratto et al. 1994; Sidanius & Pratto 1999). 이 성향이 강한 사람은 국제사회 내 강대국이 약소국에 강경한 외교정책을 펴는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7점 척도(1=매우 반대한다, 7=매우 지지한다)로 측정된 8개 문항(이상적 사회, 열등 집단, 지배집단 존재, 공평한 존중, 집단 평등, 동등한 대우, 집단 조건, 성공 기회)에 대한 응답 평균값을 0~1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하였다(Ho et al. 2015; Zakrisson & Löfstrand 2002). 측정값이 클수록 사회지배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통제변수로는 성별, 거주지역(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거주자 더미변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등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지위 함수를 고려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호남지역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 거주자들과 비교할 때 북한 및 통일에 관해 훨씬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인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들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 거주자들보다 북한 및 통일에 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구본상·최준영 2019).

또한, 주변국 인식이나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 등은 정치변수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11점 척도로 측정된 자가평가 이념, 양대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등을 통제변수로 회귀모형에 포함하였다. 우선 이념적으로 보수일수록 북한에 강경한 정책을 선호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할수록 북한을 부정적·적대적으로 인식하며, 대북포용정책보다는 강경책을 선호하리라 예측한다. 이 외에도 진보적 정부에서 대북 및 통일정책은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통령(정부)의 국정운영평가를 긍정적으로 볼수록 통일을 긍정적으로, 북한과의 대결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에 더 긍정적이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V. 통계분석 결과

<표 3>은 2022년 조사에 나타난 국가별 이미지 비율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중립 이미지를 제외하면, 한반도 주변국은 세계적 강대국 범주에 포함되므로 제국 이미지를 가진 응답자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둘째, 주변 4개국 가운데 중국만이 유일하게 제국 이미지(14.1%)보다는 야만국 이미지(43.7%)를 가진 응답자가 더 많았다. 셋째, 일본에 적국 이미지를 가진 응답자가 14.6%로 다른 국가(1.2~8.2%)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목표가 양립적이지 않지만, 군사력과 문화적 지위는 대등할 때 적국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제·군사력 강화와 문화수준의 향상과도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중립 이미지를 제외하면 제국 이미지(27.8%)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점은 유념할만하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경우 야만국 이미지가 30.9%에 달했는데, 이는 명분이 약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후 비민주적인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 한국인의 주변국 이미지별 비율

(단위: %)

	동맹국 (ally)	적국 (enemy)	종속국 (dependent)	야만국 (barbarian)	제국 (imperialist)	중립 (neutral)
미국	0.4	1.2	0.0	0.6	18.0	79.8
중국	0.7	5.4	1.2	43.7	14.1	34.9
일본	2.0	14.6	4.1	6.0	27.8	45.5
러시아	0.8	10.4	9.3	30.9	5.1	43.5

1. 통일에 대한 태도

<표 4>는 통일에 대한 태도에 관한 다양한 문항을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전술하였듯이 회귀모형에는 주변 3국 이미지 가운데 응답자가 10% 이상인 이미지만을 포함하였다. 이는 <표 3>에서 드러나듯 동맹국이나 종속국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서 이를 회귀모형에 포함하더라도 그 회귀계수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록 서로를 동맹이라 부르지만, 한국이 미국과 군사력 측면에서 동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실제로도 극소수의 응답자(0.4%)만이 이렇게 답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중립 이미지를 제외했을 때 유의한 비율(18.0%)을 보인 제국 이미지만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표 4〉 회귀분석 결과: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의 필요성 (4점 척도)	평화공존 지향 (0/1)	통일은 나의 소원 (5점 척도)	통일 문제보다 경제 문제 우선 (5점 척도)	반드시 민족통일 필요 없음 (5점 척도)	개인적 희생 불사 (5점 척도)	단일국가 실현 가능성 (7점 척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 (여성=1)	-0.330** (0.120)	0.344** (0.119)	-0.485*** (0.119)	0.465*** (0.122)	0.114 (0.119)	-0.357** (0.120)	0.035 (0.116)
연령대	0.032*** (0.004)	-0.025*** (0.004)	0.027*** (0.004)	-0.006 (0.004)	-0.023*** (0.004)	0.026*** (0.004)	0.014*** (0.004)
교육	-0.019 (0.059)	-0.058 (0.058)	0.084 (0.059)	-0.045 (0.060)	-0.074 (0.058)	0.123* (0.060)	0.153** (0.057)
가구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대구·경북	0.113 (0.221)	-0.337 (0.219)	-0.557* (0.217)	0.480* (0.233)	0.074 (0.213)	-0.142 (0.223)	-0.687** (0.225)
부산·울산·경남	-0.122 (0.174)	0.344 (0.178)	-0.342 (0.175)	0.246 (0.176)	0.353 (0.182)	0.055 (0.171)	-0.180 (0.176)
호남	0.036 (0.234)	0.402 (0.234)	-0.295 (0.222)	0.498* (0.232)	0.073 (0.232)	-0.847*** (0.227)	-0.796*** (0.216)
SDO	-1.994** (0.693)	1.426* (0.682)	-1.364* (0.675)	-3.328*** (0.701)	0.836 (0.683)	0.640 (0.691)	-0.154 (0.672)
RWA	-0.139 (0.395)	0.106 (0.390)	0.059 (0.375)	1.040** (0.385)	0.341 (0.389)	-0.412 (0.387)	-0.908* (0.377)
국정 운영평가	0.509*** (0.104)	-0.335*** (0.104)	0.566*** (0.104)	-0.289** (0.105)	-0.300** (0.103)	0.346*** (0.104)	0.288** (0.099)
자가평가 이념	0.007 (0.036)	-0.004 (0.036)	0.100** (0.036)	-0.029 (0.036)	-0.023 (0.036)	0.087* (0.036)	0.111** (0.035)
정당일체감: 더민주	-0.068 (0.195)	-0.283 (0.193)	0.554** (0.194)	-0.366 (0.200)	-0.529** (0.195)	0.598** (0.199)	0.358 (0.187)
정당일체감: 국힘	-0.173 (0.191)	0.209 (0.191)	0.207 (0.189)	-0.286 (0.194)	-0.266 (0.190)	0.261 (0.195)	-0.040 (0.182)
중국 이미지: 제국	-0.015 (0.191)	0.336 (0.190)	-0.007 (0.181)	0.347 (0.190)	0.295 (0.190)	0.155 (0.191)	-0.039 (0.184)
중국 이미지: 야만국	-0.114 (0.133)	0.517*** (0.133)	-0.357** (0.133)	0.375** (0.142)	0.046 (0.132)	-0.212 (0.133)	-0.290* (0.130)
일본 이미지: 제국	-0.335* (0.140)	0.280* (0.139)	-0.557*** (0.140)	0.478*** (0.139)	0.421** (0.140)	-0.513*** (0.141)	-0.142 (0.133)
일본 이미지: 적국	-0.135 (0.172)	0.226 (0.169)	-0.182 (0.170)	0.158 (0.173)	0.218 (0.167)	0.130 (0.175)	0.185 (0.164)
미국 이미지: 제국	-0.138 (0.158)	-0.074 (0.155)	-0.152 (0.158)	-0.051 (0.160)	-0.143 (0.157)	0.328* (0.159)	0.212 (0.152)
표본크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seudo R ²	0.15	0.11	0.17	0.11	0.09	0.12	0.08

주: ***, p < 0.001; **, p < 0.01; *, p < 0.05. 절편은 생략함.

중속변수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국가 이미지 유형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겠다. <표 4>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주변국 이미지는 중국의 야만국 이미지, 일본의 제국 이미지, 그리고 미국의 제국 이미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국의 제국 이미지, 일본의 적국 이미지는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우선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졌을 경우, 다른 이미지를 가진 응답자보다 (1)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2)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선호하며, (3) 통일을 ‘나의 소원’이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작았고, (4) 남북한 통일보다 남한의 경제발전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5) 한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커졌고, (6) 통일 달성을 위해 개인적으로 희생할 수 있다고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커졌다.

한편, 중국에 야만국 이미지를 가질수록 통일에 대해 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1)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였고, (2) 통일을 ‘나의 소원’이라고 응답할 가능성은 적었으며, (3) 통일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 해결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고, (4) 남북한이 단일국가를 실현할 가능성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경우 통일을 위해 개인적 희생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쩌면 이들은 통일에 적극적인 유형일 수 있다.

종합하면, 일본에 제국 이미지와 중국에 야만국 이미지를 가진 경우 대체로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다만,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경우 통일의 필요성 자체를 덜 느끼지만, 중국에 야만국 이미지를 가지면 통일 실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하기에 일본의 군사적 팽창에 부정적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이 남북한 통일 달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통일을 위해 희생을 불사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질 때 현상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중국에 야만국 이미지를 가질 때보다 더 강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 적국 이미지를 가진 경우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어떠한 유의한 관련성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상 ‘반일=통일’이라는 민족주의적 기반 도식에 따르면, 일본에 적국 이미지는 통일의 필요성과도 정(+)의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으나 이는 뒷받침되지 않았다. 어쩌면 이러한 결과는 일본

에 대한 적국 이미지가 이미 다른 요인, 즉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념, 정당일 체감과 같은 정치적 요인과 밀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대결 구도를 형성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과 일본을 적국으로 인식하는 유형이 중첩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2.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표 5>는 다양한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했을 때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야만국 이미지,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질 때 대북정책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에 제국 이미지, 일본에 적국 이미지, 미국에 제국 이미지는 대북 및 대외정책 태도와 제한적인 연계를 보였다.

먼저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경우를 살펴보겠다. 이 유형은 금강산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운영 재개 등 구체적인 남북협력 개선안에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보다 한·미동맹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 역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은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일본의 팽창주의 및 우경화를 우려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이러한 일본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견제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선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온 미국을 일본의 우경화와 팽창주의를 통제할 주체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서 미국이 그러한 의도를 가졌는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은 현재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에 속한다고 해서 이들이 미국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경우 남북한 간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으로 답할 가능성이 커지는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5>의 일곱 번째 열 참조). 결국, 일본의 팽창주의 및 우경화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강한 일본 제국 이미지 인식 유형은 남북한의 무력충돌 시에는 미국이 한국의 편에 설 것으로 보지만, 일본과 밀착 관계를 지속하고 있기에 일본의 우경화와 팽창까지 막아주진 않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의 우경화와 팽창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대북 및 대외정책 태도

	금강산관광 재개 (10점 척도)	개성공단 재개 (10점 척도)	한·미동맹 강화가 더 중요 (10점 척도)	필요 시 선제공격 (10점 척도)	무력충돌 불사 (10점 척도)	관계 단절 이익 (10점 척도)	한국전쟁 시 미국은 지원하지 않을 것 (3점 척도)	중국의 국제무대 부상 (5점 척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 (여성=1)	-0.010 (0.137)	0.033 (0.138)	0.041 (0.112)	0.050 (0.142)	-0.093 (0.139)	0.200 (0.121)	0.015 (0.141)	-0.089 (0.122)
연령대	0.021*** (0.005)	0.021*** (0.005)	-0.005 (0.004)	0.001 (0.005)	-0.001 (0.005)	-0.009* (0.004)	-0.007 (0.005)	-0.003 (0.004)
교육	0.110 (0.065)	0.127* (0.066)	-0.107* (0.054)	0.116 (0.068)	0.116 (0.066)	0.032 (0.058)	0.083 (0.069)	-0.003 (0.061)
가구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대구·경북	-0.503* (0.254)	-0.458 (0.255)	0.167 (0.207)	-0.938*** (0.264)	-1.102*** (0.257)	-0.118 (0.225)	-0.573* (0.253)	-0.490* (0.224)
부산·울산·경 남	-0.899*** (0.196)	-1.253*** (0.197)	0.240 (0.160)	-1.231*** (0.204)	-1.186*** (0.199)	-0.001 (0.174)	-0.292 (0.196)	-0.048 (0.177)
호남	0.091 (0.257)	0.217 (0.258)	-0.555** (0.210)	-1.922*** (0.267)	-1.598*** (0.261)	-0.221 (0.228)	-0.342 (0.262)	-1.306*** (0.239)
SDO	0.717 (0.780)	1.216 (0.784)	-1.539* (0.637)	2.508** (0.810)	2.923*** (0.791)	3.267*** (0.692)	-2.155** (0.814)	4.356*** (0.708)
RWA	0.633 (0.442)	0.290 (0.444)	1.971*** (0.361)	3.382*** (0.459)	3.026*** (0.448)	2.067*** (0.392)	1.132* (0.460)	1.679*** (0.402)
국정 운영평가	0.418*** (0.116)	0.335** (0.117)	-0.262** (0.095)	-0.198 (0.121)	-0.366** (0.118)	-0.275** (0.103)	0.154 (0.120)	0.142 (0.106)
자가평가 이념	-0.030 (0.041)	-0.032 (0.041)	0.051 (0.033)	0.107* (0.042)	0.109** (0.041)	0.022 (0.036)	-0.023 (0.042)	0.040 (0.037)
정당일체감: 더민주	0.433 (0.222)	0.230 (0.223)	-0.091 (0.182)	0.181 (0.231)	0.626** (0.225)	-0.028 (0.197)	0.148 (0.230)	0.092 (0.195)
정당일체감: 국힘	0.009 (0.216)	-0.211 (0.217)	0.289 (0.177)	0.227 (0.223)	0.541* (0.219)	0.303 (0.192)	0.009 (0.221)	-0.171 (0.190)
중국 이미지: 제국	0.280 (0.215)	0.143 (0.216)	0.152 (0.175)	-0.217 (0.223)	-0.366 (0.218)	-0.347 (0.190)	-0.648** (0.210)	-0.119 (0.190)
중국 이미지: 야만국	-0.381* (0.152)	-0.363* (0.153)	-0.310* (0.124)	-0.308 (0.158)	-0.571*** (0.154)	-0.426*** (0.135)	0.166 (0.159)	-0.702*** (0.139)
일본 이미지: 제국	-0.405* (0.161)	-0.600*** (0.162)	-0.349** (0.131)	-0.158 (0.167)	-0.274* (0.163)	0.047 (0.143)	-0.327* (0.161)	-0.524*** (0.147)
일본 이미지: 적국	-0.082 (0.198)	0.199 (0.199)	0.124 (0.162)	0.124 (0.206)	0.021 (0.201)	0.003 (0.176)	0.271 (0.214)	0.341* (0.173)
미국 이미지: 제국	-0.116 (0.180)	0.142 (0.181)	0.012 (0.147)	0.594** (0.187)	0.561** (0.182)	0.292 (0.160)	-0.019 (0.182)	0.169 (0.157)
표본크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dj.R ² /Pseudo R ²	0.10	0.12	0.12	0.22	0.22	0.13	0.09	0.21

주: ***: p < 0.001; **: p < 0.01; *: p < 0.05. 절편은 생략함.

종합하면,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은 통일보다는 ‘현상유지 선호’ 성향(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평화공존 지향적이며, 통일에 대해 소극적 태도) 이를 막아줄 수 있는 세력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확신 부재라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남북관계 현상(status quo)을 바꿀 수 있는 북한과의 구체적 협력 방안(금강산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운영 재개)에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도발에 무력으로 응징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에 야만국 이미지를 가질 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과 고려는 역사적으로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두 나라(원나라, 청나라)의 도전을 받으면 처음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다 결국은 그들의 군사력에 굴복한 경험을 반복했다. 반면, 문화적으로 조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았던 명나라에는 자발적으로 사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문화적 수준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이 한민족 정체성 형성과정에 반영되었고, 이러한 한국인의 정체성은 현재 중국을 바라보는 것에도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전술하였듯이 중국에 야만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즉 이 유형은 남북한 교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의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이 유형은 남북한 교류보다는 한·미동맹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부상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 역시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경우와 비슷하다. 중국에 야만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이 통일에 매우 소극적인 계층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은 남북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점이다.

대북정책 태도와 미국에 대한 이미지에 관한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경우, 대북 강경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북한 선제공격 및 피해를 불사하고 무력충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다. 즉 우리 국민 다수는 북한과 강 대 강으로 맞붙는 것을 꺼린다. 다만, 앞선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국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은 단순하게 민족주의 관점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은 물론 통일에도 적극적인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 어쨌든, 이들은 민족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남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부류일 수 있다. 즉 필요에 따라선 무력충돌을 불사하더라도 남북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 통일 적극 계층일 수 있다.

앞선 <표 4>의 결과에서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경우와 달리 미국에 제국 이미지를 가질 때 통일을 위해 개인적 희생도 불사하겠다고 응답할 가능성은 커졌던 점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부정적인 이미지(제국 또는 야만국 이미지)가 형성되어서 통일에 소극적이고,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것인가? 즉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설명변수)가 소극적인 통일인식 및 태도(종속변수)를 형성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설명변수)를 지닌 사람들이 일본에 부정적 이미지(종속변수)를 가지는 것인가? 현재 분석결과만으로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그 두 변수 간에 유의한 연계(association)를 확인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일본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사람들이 민족주의적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이 통일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리라는 기존 논리는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오히려 일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 중에는 일본이 군사력이나 문화적 수준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부류가 오히려 다수고, 이들은 일본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남북한 간 협력 시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단순히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반일감정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어쩌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본의 우경화와 팽창에 대한 두려움, 그에 따른 위협인식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민족주의로 환원하고, 이는 민족주의 기반의 통일인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반일=민족주의 → 통일에 대한 적극적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이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었을 가능성에서 출발하여, 그 둘 간 연계를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선 단순한 호감도를 넘어 좀 더 변동성이 적은 인식체계 기반의 분석틀이 필요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관계에서 활용되어 온 국가 이미지 이론을 적용해 한국인이 주변국에 대해 가진 국가 이미지를 유형화하고, 이미지 유형별로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경험적

으로 확인해 보았다.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에 관한 회귀모형 결과를 종합하면,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경우,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민족주의 관점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에 크게 동의하지 않으며, 통일 달성을 위해 본인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생각도 별로 없었고, 오히려 통일 문제보다는 경제문제 해결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통일에 관한 한 가장 소극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처럼 적극적인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무력충돌 불사와 같은 강경책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미국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동맹 강화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현상유지적 대북정책을 지향하는 특성을 보인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야만국 이미지 유형은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과 마찬가지로 통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다만,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과 비교할 때, 하나의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통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술에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반면, 남북한이 단일국가로 실현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들은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 측면에서도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 단절이 더 이익일 될 수 있다는 관점에는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과는 달리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경우, 즉 미국과 한국은 목표가 양립하기 어렵고, 미국은 한국보다 국력과 문화 수준에서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는 유형은 대북 강경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유형은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부류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분석에 사용한 이미지 유형 가운데 유일하게 통일을 위해 개인적 희생도 불사하겠다고 응답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선 무력충돌을 불사하더라도 남북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이 유형은 가장 적극적인 통일지향 계층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호감도보다 더 안정적인 주변국 인식 기준인 이미지에 따라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 간 연계를 탐색한 귀납적 연구이기에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한국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개선될수록 주변국에 제국보다 야만국 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한국이 주변국의 능력을 단기간에 극복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즉 상수 개념이다. 따라서 주변국의 문화적 수

준에 대한 평가가 그들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근 전 세계의 한국문화에 관한 관심은 음악과 대중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음식, 문학, 예술 등 전 분야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중국에 대한 야만국 이미지 유형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앞서 검증하였듯이 야만국 이미지는 통일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중국이 북한 및 통일 문제와 관련해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야만국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 차라리 한국인 다수가 중국에 제국 이미지를 가질 때 통일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더 기대를 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문화 수준 향상이 남북한 통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낙관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한국의 문화 수준 향상이 주변국에 대한 야만국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러한 이미지가 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이며 통일 달성에도 비관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둘째, 역사적으로 객관적·물질적 능력과는 별개로 문화적 수준에 대한 수용이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주변국에 알려야 한다. 특히, 중국이 일방적 힘의 과시를 시도할 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야만국 이미지를 가진 국가에 회피나 자기 절제적 행동을 보이기보다 저항하는 길을 택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즉 한국인에게는 국가 간 관계에서 하드파워보다는 소프트파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변국에 알리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인식을 하나의 원인으로 돌리는 환원주의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단순히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반일 정서로만 설명할 수 없고, 어쩌면 일본의 우경화와 팽창에 대한 두려움, 그에 따른 위협으로서의 일본 인식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민족주의로 환원하고, 이는 민족주의 기반의 통일인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정치권 일부의 논리는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일본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군사적 위협에 관한 인식은 민간 차원의 호의와 환대로 불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노력은 쌍방향적이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한국인의 일본 인식을 바꿀 수는 없다. 한국인의 잠재된 두려움을 불식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구본상, 최준영. 2019. “통일의식에서의 영호남 지역 차에 대한 경험적 분석.” 『분쟁해결연구』 17(2), 107-135.
- 남궁곤. 2002. “국가이미지(national images)론의 중심테제와 국제정치적 의의.” 『시민정치학회보』 5, 98-123.
- 동아시아연구원. 2006. 『국제관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Global View) 2006: 대외인식조사』.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박인술, 강우진, 백인희. 2023. “한국 국민의 대일본 인식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세대 요인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6(3), 251-278.
- 박주화, 김갑식, 민태은, 윤광일, 지병근, 구본상. 2022. 『KINU 연구총서 22-20: KINU 통일의식조사 2020: 통일 및 북한인식과 미디어의 영향력』. 서울: 통일연구원.
- 송샘, 이재묵. 2019.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 남남갈등과 세대갈등의 중첩 가능성 연구.” 『지역과 세계』 43(1), 117-141.
- 이상신, 장희경. 2011. “친중(親中)과 반미(反美)의 경계: 중국 국가이미지의 결정요인 연구.” 『국제정치논총』 51(4), 109-132.
- 이상신, 민태은, 정은미, 윤광일, 구본상, Rose McDermott. 2019. 『KINU 연구총서 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 이상신, 윤광일, 구본상. 2019. 『KINU 정책연구시리즈 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 통일연구원.
- 이상신, 민태은, 윤광일, 구본상, Peter Gries. 2020. 『KINU 연구총서 20-25: KINU 통일의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이상신, 민태은, 윤광일, 구본상. 2021.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미중갈등의 인식 - Executive Summary』. 서울: 통일연구원.
- 장기영. 2017. “안보위협이 과거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관한 국내여론 분석.” 『국제정치논총』 57(4), 45-73.
- 전재호. 2002. “한국 민족주의와 반일(反日).” 『정치비평』 9, 128-148.
- _____. 2019. “한국의 반일(反日) 민족주의 연구: 담론의 변화와 특징.” 『한국과 국제정치』 35(2), 113-147.

- 지병근. 2008.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인식론적 장애 요인: 한국에서의 반일 반중 의식.” 『한국과 국제정치』 24(3), 125-147.
- 최종호, 정한울, 정현주. 2014. “한국인의 대일본 감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제협력, 그리고 정체성.” 『국제관계연구』 19(1), 41-76.
- “중 외교부 간부 “한국 사드 배치팬 단교 버금가는 조치.” 『한겨레』 2017/01/0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77429.html> (2024/2/27 검색).

영문 자료

- Alexander, Michele G., Shana Levin & P. J. Henry. 2005. “Image Theory, Social Identity, and Social Dominanc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Motives Underlying International Images.” *Political Psychology* 26(1), 27-45.
- Altemeyer, Bob. 1981. *Right-Wing Authoritarianism*. Winnipeg: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 _____. 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47-92.
- Bilali, Rezarta. 2010. “Assessing the Internal Validity of Image Theory in the Context of Turkey-U.S. Relations.” *Political Psychology* 31(2), 275-303.
- Boulding, Kenneth E. 1959.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2), 120-131.
- Castano, Emanuele, Alain Bonacossa & Peter Gries. 2016. “National Images as Integrated Schemas: Subliminal Primes of Image Attributes Shape Foreign Policy Preferences.” *Political Psychology* 37(3), 352-366.
- Herrmann, Richard K., Philip E. Tetlock & Penny S. Visser. 1990. “Mass Public Decisions to Go to War: A Cognitive-Interactionist Framework.”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3), 553-573.
- Herrmann, Richard K., James F. Voss, Tonya Y. E. Schooler & Joseph Ciarrochi. 1997.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Test of Cognitive Schemat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3), 403-433.

- Ho, Arnold K., Jim Sidanius, Nour Kteily, Jennifer Sheehy-Skeffington, Felicia Pratto, Kristin E. Henkel, Rob Foels & Andrew L. Stewart. 2015.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₇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6), 1003-1028.
- Hurwitz, Jon & Mark Peffley. 1987. "How Are Foreign Policy Attitudes Structured? A Hierarchical Mode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4), 1099-1120.
- Kelman, Herbert C. 1965. "Social-Psych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Definition of Scope." in *International Behavior: A Soci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edited by Herbert C. Kelman, 3-39.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Koo, Bon Sang & Jun Young Choi. 2022. "Who Takes the Japanese Threat Seriously? A Survey-Based Analysis of South Koreans' Perceptions." *Pacific Focus* 37(2), 289-315.
- Lee, Sang Sin, Tee-eun Min, Kwang-il Yoon & Bon Sang Koo. 2023. *KINU Unification Survey 2023: Executive Summary*.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Levin, Shana & Jim Sidanius. 1999. "Social Dominance and Social Identity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In-Group Favoritism or Out-Group Derogation?" *Political Psychology* 20(1), 99-126.
- Manganell-Rattazzi, Anna Maria, Andrea Bobbio & Luigina Canova. 2007.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5), 1223-1234.
- Pratto, Felicia, Jim Sidanius, Lisa M. Stallworth & Bertram F. Malle.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741-763.
- Shin, Gi-Wook. 2019. "On Korean Nationalism and Its Role in the Escalating Japan-South Korea Friction." 5 September 2019, <https://fsi.stanford.edu/news/korean-nationalism-and-its-role-escalating-japan-south-korea-friction> (accessed 27 February 2024).

- Sidanius, Jim & Felicia Pratto. 1999.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lverstein, Brett. 1989. "Enemy Images: The Psychology of U.S. Attitudes and Cognitions Regarding the Soviet Union." *American Psychologist* 44(6), 903-913.
- Szalay, Loran B. & Elahe Mir-Djalali. 1991. "The Image of The Enemy." in *The Psychology of War and Peace*, edited by Robert W. Rieber, 213-250. New York: Plenum Press.
- Van Ham, Peter. 2001. "The Rise of the Brand State: The Postmodern Politics of Image and Reputation." *Foreign Affairs* 80(5), 2-6.
- White, Ralph K. 1991. "Enemy Images in the United Nations-Iraq and East-West Conflicts." in *The Psychology of War and Peace*, edited by Robert W. Rieber, 59-70. New York: Plenum Press.
- Zakrisson, Ingrid & Par Löfstrand. 2002. "Tolerance, RWA, SDO, and Perceived Upbringing in Sweden." Paper Presented at the ISPP 25th Scientific Meeting, Berlin, Germany (July 16-19).

Abstract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Images and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Bon Sang Koo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association between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eighboring countries, their views of unification, and their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policy. By applying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image theory, this study categorizes national images and explores potential variations in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across different image typ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dividuals who hold an imperial image of Japan feel are less inclined toward unification and tend to support status-quo North Korea policies. Conversely, those with an imperial image of the United States demonstrate the most proactive attitudes toward reunification, attempting to address the North and South Korean issues from a non-nationalist perspective. Respondents with a barbarian image of China, which is the most prevalent image in South Koreans, show a passive attitude toward unification, favoring peaceful coexistence similar to those with an imperial image of Japan. However, they oppose the notion that sever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is more beneficial, differing from the views of those who hold an imperial image of Japa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valuations of soft power are closely linked to the perceptions of neighboring countries. An improvement in cultural status leads to a barbarian image of neighboring countries, potentially fostering pessimistic attitudes toward achieving unification.

Key Words: National Images,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Barbarian Image, Imperialist Image

□ 논문접수일: 2024년 1월 7일, 심사완료일: 2024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20일